

공급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성명·보도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국민의 명령을 받들 것인가, 박근혜와 함께 부역자가 될 것인가

작성일 2016.12.09 작성자 대변인 Views 1917

[성명]

국민의 명령을 받들 것인가, 박근혜와 함께 부역자가 될 것인가

- 탄핵표결 앞둔 국회 역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선 것 -
- 즉각퇴진을 향한 항쟁은 계속된다 -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가 표결에 부쳐진다. 박근혜가 국회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은 박근혜에 대한 간결하고도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즉각퇴진과 구속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한 달이 넘도록 100만, 200만의 촛불이 지칠 줄 모르고 거세게 타오르자 국회는 ‘중립내각-책임총리-2선 후퇴’ 등 갈팡질팡 행보 끝에 이제야 박근혜를 심판대에 올렸다.

오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박근혜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계산과 협상으로 좌충우돌했던 국회 역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이 와중에도 이정현 등 친박계는 오직 박근혜의 명예를 위해 ‘지금이라도 탄핵을 멈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서 지우라며 협박했다. 어제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국회는 ‘표결에 시위대의 압박을 받아선 안 된다’며 문을 걸어잠갔다.

국회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처음부터 자의로 탄핵안을 상정했는가? 아니다. 성난 민심이 국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오늘 국회가 민심을 부정하는 표결을 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건 부결하건 상관없이 박근혜정권 즉각퇴진을 위해 광장의 항쟁을 이어갈 것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탄핵 가결은 오만한 박근혜정권과 그 비호세력에 대한 한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생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광장의 민심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뻔뻔하게 버티겠다는 대통령을 즉시 끌어내리기 위해 싸울 것이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답은 간명하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표자로서의 자격은 일체 부정될 것이며, 민중이 직접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권력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루도 박근혜의 임기가 이어지고 그 부역자들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오늘을 ‘운명의 날’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표결로 박근혜가 내려가는 것도, 그 부역자들이 청산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의 표결을 만들어낸 것이 광장의 촛불이었다면, 앞으로 박근혜 즉각퇴진을 실현시키는 것 역시 광장의 촛불이다. 12월 10일, 촛불들은 다시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을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이다. 끝.

2016. 12. 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List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